

청각장애 공동체의 시각에서 바라본 성서

엘사 타메즈*

안근조 번역**

1. 서론

최근에 들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수화(sign languages)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많은 수화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각 나라의 정부들은 청각장애 단체들의 요구로 인해 그들 나라의 청각 공동체의 공용언어로서 수화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공용언어로 “LESCO”가 사용되는데 이는 코스타리카 수화를 의미한다. 수화의 역할은 청각장애 공동체가 새로운 세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상인 사회를 위해서도 그들의 언어를 개발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성장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코스타리카와 같이 청각장애 인구가 대략 26,000명에 지나지 않는 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상인 사회가 점차로 청각장애우들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데, 이는 청각장애우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언어가 담긴 문화를 가지고 사회 중심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존중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청각장애 공동체는 무시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청각장애 세계와의 짧은 접촉으로도 우리 정상인들이 그들에게 대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는가를 깨닫게 된다. 예를 들면, 생각보다 많은 정상인들이 청각장애자들이 동시에 병어리로 알고 있다. 귀머거리와 동시에 병어리라고 하는 지칭은 청각장애우들을 괴롭히는 용어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사표현 양식이 있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자들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바보라고 여기며 일이나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은 정반대이다; 주어진 똑같은 조건과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정상인들처럼 똑똑하다.

다음은 정상인들이 모르는 청각장애우들에 대한 정보이다:

■ 세계 각국의 약 7천만 청각장애우를 대표하는 국제 NGO 단체인 국제 청각장애 연맹이 결성되어 있다;¹⁾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메리카 지역 번역 컨설턴트

**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화목감리교회 담임목사, 구약학

- 청각장애 공동체는 듣지 못하는 것을 장애로 여기지 않는다. 단지 그들 자신만의 특별한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언어를 가진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건으로 받아들인다;

- 각국의 수화가 존재한다;

- 청각장애 연맹체들은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국내외 대회를 자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와 포부를 나눈다;

- 여러 해 동안 수화의 형태론과 구문론, 음소론, 어의론 등에 관심을 가진 언어학자들에 의해 수화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왔다;

- 교수들과 학생들 모두가 청각장애자들로 구성된 대학교가 있다(예를 들면, Gallaudet); 또한 청각장애우들을 위한 교회 그리고 청각장애자들만의 축구경기가 있다;

- 서로서로 연락하며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며 더불어 격려하는 청각장애자들의 웹사이트가 많이 있다;

- 수화로 된 디지털 도서관들이 있다(즉, www.cervantesvirtual.com).

우리는 정상인들의 관심 부족의 문제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청각장애우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정상인들이 청각장애우들의 감정에 더욱 민감해질 때 가능하다. 남아프리카의 데이비즈(Aminah Davids)의 언급은 청각장애우들의 감정을 매우 웅변적으로 대변해 준다: “문제는 정상인들의 세계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매우 외로운 길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²⁾

<http://www.sitiodesordos.com.ar/>

2. 청각장애 공동체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성경

1) WFD는 특수한 법적 또는 행정적 방침들을 수행함으로써 각국의 청각장애우들이 그들 자신의 수화와 조직 그리고 문화적이고도 다양한 활동들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WFD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개발도상국의 청각장애우들이다; 그들을 위한 수화; 교육과 정보 기회를 포함한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의 평등한 기회.

2) 그의 시로부터 발췌: *La sordera es como tener oídos ciegos*. www.sitiodesordos.com.ar

성서는 어떤 공동체가 그들의 상황과 필요 그리고 꿈을 통해 이해하며 읽게 될 때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통하게 되어 있다.

그들의 아동기로부터 오랫동안 청각장애우들은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롭게 살게 된다. 이러한 외로움과 오해받는 일들에 대한 감정이 그들의 시와 그들에서 발견된다. 다음의 한 어린 아르헨티나 소녀의 시는 이를 잘 반영해 준다:

나는 이해받기를 원해

나는 이해받지 못한다
나는 그 이유가 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또는 나만의 소통 방식으로 인함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때로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좌절할 때
소외될 때.

나는 단지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다
나를 그대로 이해해 줄 사람을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갖도록
이 고통을 극복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네가 고통할 때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다른 이들에 의해.

오직 그들만이 알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그 세계를

그리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만이...3)

청각장애우들은 정상인들의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사실상, 정보나 기술, 직업과 교육, 건강과 종교, 스포츠 등의 접근은 거의 모두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독점적으로 열려 있을 뿐이다.

- 청각장애우가 정상적인 가족에서 자라나고 다른 정상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 하도록 학교에서 강요될 때에 많은 경우 그는 외로움을 느끼며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들에 도달할 수 없다고 믿게 되며 쉽게 학교를 그만두어 버린다. 다음의 한 소녀의 증언은 좋은 예를 제공한다:

그들은(선생님들은) 많은 경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공부 많이 해야 했으나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이따금 나는 그들에게 질문했으나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입술을 읽기에는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빠르게 말했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우들 사이의 이런 일반적인 소외 현상은 수화가 그들의 자연스러운 소통수단임이 인식된 이후에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젊은 나이가 들었든, 청각장애우들이 서로 만날 때에 그들은 원활하고 놀라운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깊은 기쁨을 누리게 한다.⁴⁾ 모든 측면에서 페러다임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⁵⁾ 코스타리카에서는 청각장애우들이 활발히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공동체가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언어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과 그들의 문제와 욕구 그리고 꿈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정체성과 그들 자신의 문화 발견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을 돕는데 기여한다.

성서는 영감과 능력의 원천으로서의 성서는 청각장애 공동체를 부각시키는

3) 작자 미상 www.sitiodesordos.com.ar

4)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다양한 연령대의 청각장애우들이 *La Plaza de la Cultura* 에 함께 모여 교류하는 일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5) Soledad Cavaría Navas 에 따르면, 수화는 단지 “청각장애우들의 정체적인 인식 틀” 뿐만이 아니라 정상인들을 위한 변화의 원천이다: “Un cambio de paradigma: la educación de la persona sorda”.

데 기여하게 된다. 단지 성서본문들 그 자체로써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공동체의 시각에서 해석함을 통해서 또한 기여할 수 있다. 청각장애 공동체가 정상 사회에 대하여 상당히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3. LESCO(코스타리카 수화)에서 시도하는 파일럿 계획

수화 등장의 배경 가운데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미주 지역 번역부에서는 시범적인 파일럿 계획을 시도하게 되었다: 파일럿 계획이라 함은 성서의 부분을 LESCO로 번역하는 작업이다. 이유는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깊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스페인어를 모르기에 읽고 쓰는 일에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문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청각장애우들의 자기 확인의 과정 가운데 이들은 성서를 능력의 원천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청각장애 공동체는 성서를 그들 자신을 위해 응용해야 하며 그들의 현실로부터 해석해야만 한다. 파일럿 계획은 다음의 두 요점을 지닌다: 몇몇 선정된 본문에 대한 번역과 청각장애 공동체의 입장에서 각각의 본문을 해석해 내야 하는 점이다. 이 모든 과정은 청각장애 번역자들로 이루어진 팀에 의해 수행된다.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우리는 누가복음 가운데 네 부분이 포함된 DVD를 제작하였다: 예수의 탄생과 세 비유 말씀들. 성서 본문의 번역과 함께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소개를 첨가시켰다. 첫 번째는 청각장애 공동체와 그들의 성서와의 관계성을 다루었다; 둘째는 성서 본문의 맥락을 소개함으로써 말씀을 지성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또한 본문 번역에서 나중에 사용될 새로운 성서 상징들을 소개하여 놓았다. 각각의 성서 이야기 맨 끝에는 5분에서 7분 정도의 주석을 달아놓았다. 이 주석은 성서 이야기의 중요 메시지들을 강조하면서 그것들이 청각장애 공동체의 상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보여준다. 각각의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사 기도로 끝난다. DVD에는 부제들과 녹음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청각장애우의 가족들과 특수 사역을 감당하는 정상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를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청각장애 공동체의 시각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각장애우 번역자들도 그들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성장시키는 데에도 부제를 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각장애우들은 이 DVD를 쓰고 감독할 뿐만 아니라 번역하고 해석하고 기호화 했다. 이 전문적인 제작물 이전에 새로운 기호들을 승인받기 위해 LESCO 국내 위원회에 하나의 비디오를 발제물로 제출하였다. 나중에는 최종 비디오물을

통해 상이한 교단을 대표하는 청각장애우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제 본 발제자는 그 DVD의 한 부분을 상영하려고 한다: 잃었다가 도로 찾은 동전의 비유를 청각장애 공동체의 관점으로 번역과 주석 그리고 마지막 감사 기도를 포함해 상영하려 한다.

4. DVD 상영

4.1. 다시 찾은 동전(눅 15:8-10)

예수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주셨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열 닢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아 낼 때까지 살살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4.2. 주석

우리가 방금 본 이야기에서 한 여인이 한 조그마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집은 창문도 없는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빛도 없는 어두컴컴한 그런 초라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조심스레 모든 곳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안은 어둡기에 잃은 동전을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세한 사항으로 미루어 그는 가난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남편 없이 홀로 사는 과부였을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그가 정성껏 아껴둔 동전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침울해졌습니까? 찾기를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즉시 그의 집 전부를 뒤지며 동전을 찾게 됩니다. 그는 동전을 찾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했으며 마침내 찾게 됩니다. 그는 애써 찾았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청소하고 그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살살이 찾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기쁨에 충만하여 그의 친구들과 잔치를 엽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청각장애우들의 상황과 관련시켜 봅시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청각장애우들이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가령, 그들이 Guanacaste, Puntarenas, Limón, Pérez Zeledón 등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청각장애 아동들은 소통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라납니다. 나중에 그들이 소통이 잘 되는 다른 청각장애우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 있음을 경험합니다. 다른 아동들의 경우, 소통이 꽤 잘되는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청각장애우들을 만나서 그들과 상호 교통하게 되면 그들은 진정으로 소통과 상호 작용을 즐기게 됩니다. 성서 이야기에서 그 여인이 그 작은 동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매우 행복해졌습니다. 이는 또한 청각장애우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소통하고 상호 관계를 맺고 서로를 돕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청각장애우들은 청각장애 공동체에서 우리들 안에 존중을 경험하며 친구들 사이에 도움을 주며 우리들 각자는 한 사람의 청각장애우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게 되면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운동이나 교육 또는 오락 등의 문화적 활동 또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행복해지고 우리는 함께 고민하며 계속해서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우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이 청각장애 공동체 내에서 도움과 기쁨, 용기와 인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야기 가운데 나타난 천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빠지고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서고 그 분과 관계를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쁨으로 맞으시고 천사들은 이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똑같은 일이 청각장애우에게 나타납니다. 즉 의사소통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 죄악 가운데에서 혼란 중에 외로이 있을 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는 예수께서 구세주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며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다가가서는 이내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천사들이 축복하게 됩니다.

감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각장애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특별한 언어로 소통하게 하시며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어>

성서 번역, 코스타리카, 청각장애 공동체, 수화, 누가복음 15:8-10

<Abstract>

The Bible and the Deaf Community

Dr. Elsa Tamez

(United Bible Societies Americas Area Translation Consultant)

This essay refers to the emerging sign languages in the different countries of the world, including Costa Rica, the recognition that governments are giving them by officially recognizing their languages and the impact that this is generating with persons who are hearing impaired. Today the deaf community,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presents itself with its own identity, culture and languages. For the author this change today is a challenge to the hearing society, because the world of the deaf community is unknown and has many myths created about it. The author shows how for so long the deaf community has felt ignored, excluded and misunderstood. However, because of this new situation the deaf are trying to become recognized, to express themselves and to struggle for their rights as a community with their own language and culture. The Bible, for the author, can be a source of empowerment for the deaf, above all if it is translated in their own sign language and re-read from the situation of the deaf community.